

# 과거의 습을 짚어지지 마시고 오늘에 놓아버리세요

## 29면에서 계속

일들은 우리가 잠재해 있는 이 의식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차원이 자기한테 주어져서 바로 텔레트처럼 자기 배역을 맡아 가지고 여기 나오듯 생산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이 됐으면 생산이 된 대로, 그 차원대로 내가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이 뺑뺑 돌고 있는 거죠. 그 배역을 맡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자에, 과거심에서 내가 행하고 그 습을 익혔던 그것이 오늘날에 한데 부합이 됐기 때문에, 미래에는 앞으로 지금 살아나가는 습이 미래에 갈 것인데, 미래에 가서 오늘로 다시 올 것인데,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미래에 우리가 그 습을 짚어지고 거기 이전에 습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갈 것은 오늘에 녹이고, 과거에 지은 것은 바로 오늘에 녹인다 이겁니다. 과거에 지은 그 습을 오늘에 놓는다면 미래에는 바로 습이 붙을 것이 없죠. 현재에 붙을 것이 없는데 어찌 미래에 붙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돌듯이 인간 자체가 과거심으로부터 그 습을 짚어지고 나온 현실에, 바로 오늘에 놓지 못하면 미래에 다시 오늘에 또 짚어지고 나오니 세세생생에 우리는 그 업보에 꼬달리면서, 윤회에 꼬달리면서, 유전에 꼬달리면서 항상 살아야 하는 그러한 그 참, 고된 아픔, 고독함, 외로움, 그 가난함 이러한 시절을 다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겪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유전되어 항상 업보로서 얽히고설킨 돌이켜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왕지사 이 몸을 받아 가지고, 오늘 배역을 맡아 가지고 나왔으면 오늘날에 아예 그냥 녹여 버리는 것이, 꼬달리지 않고 녹여 버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관세음보살 기도로 가피를 받았다는데

문) 저는 부처님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심자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하여 가피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과 주인공에 관한 것이 많이 다른 것이지요.

답)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맨 기트머리로 가서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공생이 됩니다. 공생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공심인 것을 알게 되고, 사람뿐이 아니라 말입니다. 또한 공체라는 것을 전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공용이라는 것을 전부 알게 되지요. 내가 움직여짐으로써 내가 움직여지고 내가 움직여져서 주는 게 있으면 내가 너를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전부 공용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공식으로 사는데 '일체 만법을 내가 어찌 들고 내는 것을

알았으니까.' 하는 이치나 같습니다. 그대 일체 만법을 들고 내도 조금도 걸림 없이 들고 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야, 관세음보살을 찾았는데 그럼 관세음보살 다르고 주인공 다르나 이거죠? 그런데 지장하고도 둘이 아니고 관세음하고도 둘이 아니고, 이견 용신하고도 둘이 아니고 허공신하고도 둘이 아니고 지신하고도 둘이 아니고, 모두 석신하고도 둘이 아니고, 모두가 생명이 있다 하면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공체고 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면은 공부도 잘되고 이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자불을 불렀다. 자성불을 불렀다. 자성불이 있으니깐 관세음이라는 이름도 알았지 내가 없다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을 다 알게 된 거고, 또 이런 공부가 이렇게 이름이 많다 하더라도 일

지라는 게 무슨 돈이 많아서만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걸 공식으로서 다 알 수 있다면 그게 부자지요. 진짜 부자.

### 장기이식 받으면 업식이 같이 받을까요?

문) 요즘 장기 이식이나 유전자 조작이나 등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게 발달이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주는 사람의 업식이 같이 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답) 업식보다도요, 업식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몸체를 볼 때에 그, 육등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육등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세포가 다르니까 틱들이 다르단 얘기도요. 틱들이 다르니까 생김생김도 다른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면 세포를 가지고서, 유전자를 가지고서 사람 병 치료를 한다 이래도 그 유전자의 의식은 그대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승화시키고 나쁜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뇌에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돼 있다. 입력이 돼 있다. 입력이 돼 있어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반드시 거기다가 되압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들어가는 대로 나온다 이런 소립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마음 공부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공식으로서 공용으로 이걸 짜집아서 해결을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나쁜 일도 안 했는데 왜 병이 왔는지...

문) 저의 오빠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참 자상하고 남들한테도 잘하는데 몇 개월 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절에 좀 갔다 오면 좀 나아지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절에 가자 그러면 막 화를 내기만 해

다.'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일러 주면은 그게 대 번을 수가 있어요.

이 정신가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제자리에서 만이 제자리를 고치지, 아무리 약을 쓰고 그래 도 이 정신병이라는 게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업식에서 오는 거예요. 의식에서, 내가 아무게다, 내가 아무게다, 너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라, 남을 때려라, 뭐 어딜 가거라 이라고 그냥 자꾸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노이로제가 돼서 그냥 거기에 말려서, 그게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저 자꾸 절에 나와서 신행담도 보고 책도 보면서, 법문도 듣고 이라고, 안 하더라도 거기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다. 거기서 시키는 거다. 거기서 들리는 거다. 거기서 말해 주는 거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화내는 것도 오빠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빠 아닌 그 오빠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다가 포함해서 둘러놓을 줄 알아야, 거기서만이 화해서 나에게 이렇게 접근한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다 되나야만이 그게 물방울과 물방울이 둘이 아니게 되듯 그렇게 하나가 되면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즉 말하자면은 '오빠도 나오게 해서 이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것도 너 아니야? 마음이 안정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오빠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나 보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게 할 수도 있잖아?' 하고 자꾸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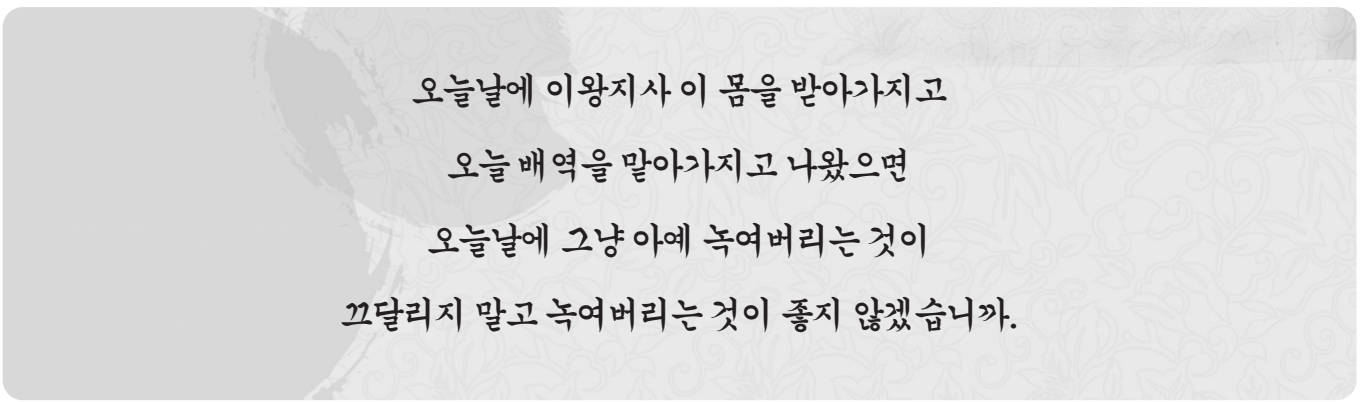
### 사십구재를 지내야 한다는데

문) 불교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사십구재를 지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

답) 본래는 사십구재까지도 가지 않아요. 이 도리를 알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 마음이다가 "아버지가 당신 마음에 있다."고 하면은 물방울이 한 방울 있는데 한 방울마저 한 방울과 같이 한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가 그냥 하나가 돼서 사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십구재라는 것도 사람들이 49일을 이렇게 해 났으니까 사십구재지, 한 찰나예요. 이게 몸뚱이가 벌써 가기 전에, 사흘 전에 벌써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천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49일이 될 수 있죠. 꼭 49일만 49일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급하게, 예를 들어서 빨리 외국에를 식구가 가야 할 텐데 이 부모 상을 입어서 사십구재를 지내고 가야했다, 이렇게 한다면 사흘을 사십구재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사십구재가. 그것은 부모의 그 목은 은혜를 갚게 하기 위해서 49일 이렇게, 절절히 이렇게 해 놓는 거죠.



볼이로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이름은 수없이 많으나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부분이 따로따로 이게 돼 있다. 부엌일 따로 있고 마루 흠치는 거 따로 있고 방 흠치는 거 따로 있듯이 말입니다. 따로 있기는 하나 치우는 거는 한 사람이 다 치우죠. 그렇듯이 그냥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그게 부처님의 이차적인 이름입니다. 방편엔. 그래서 부처님 대리로서의 응신으로서 응해 주시는 것이 보살의 응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자성불하고도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면 정말 도인 아닌 도인이 되죠. 그럼으로써 편안하고 웃고 살 수 있고 한번 쳐다보고 놓을 한번 할 수도 있고 한번 내려다보고 빙긋이 웃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아, 얼마나 좋습니까. 옆으로 보니 굴러가고 아, 모로 보니 모로 가도 굴러가고 뭐 굴러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고 찰나찰나 때어 놓지 않는 게 하나도 없으니 자기 자체도 그냥 모 저서 있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따지고 보면은 이걸 못 봐서 그렇지 파득파득 찰나찰나 뛰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세요. 그 부

로 변함이 없습니다. 판 데 있던 그 유전자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그 짓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여 치료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뽀얍 짙을 참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수술을 할 때 그 유전자를 넣고 다리 부러진 그 틱을 했던 말입니다.

그 유전자는 차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조금 생긴다는 얘기도, 결부가 된다는 얘기도, 그래 좋지 않은 것은 모르지만 좋은 것은 지금 말해서 장병이죠. 뭐, 좋지 않은 것은 또 좋지 않은 대로의 세세생생에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좋은 거 반이라면 언젠가는 거기 속한다 이런 뜻이죠.

또 장기 이식을 했다면, 죽은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발전이 돼서 거기서 옮겨졌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자동 컴퓨터에서 지워진다면 별 문제지만 지워지지 못한다면 그건 대대로 내려가죠. 문제가 대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 마음 공부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제거할 수 있다.

요. 오빠가 남한테 뭐, 나쁜 일도 하지 않고 책 읽기 좋아서 잘 살았는데 왜 그런 병이 오게 됐는지, 제가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 그것이 지금 온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기 전에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만났고 자기 영혼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과 그게 침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속에 그 생명, 모습, 의식이 모두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거든. 그래서 태어나는 건데, 그게 과거에 그것이 입력이 돼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의 의식들이 "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 통이 되니까.

즉 말하자면 인과지오, 인과로써 남을 해롭게 했다거나 이런 점이 있다면 그러한 인과로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연들, 과거에 인연들이 된 그 마음이 오빠를 놔 주질 않거든요. 그 고통에서 저기 해야 원수를 갚을 텐데, 원수 갚을 수가 없거든. 거길 나가면 자꾸 그게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막는 건데, 오빠더러 관하는 법 고것을, 어떠한 게 거기서 시키더라도 거기다 말고, '거기서만이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안 나오게 하는 것도 거

##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향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0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정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비천지오 판매 비취)
  - ▶ B비취 : 원석에 착색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격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격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격 ₩6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100% 순수 자연 그대로 백련사 국내산 산삼

## 장長 뇌腦 參參

### 건강이 최고!

평생 최고의 선물을 불자들에게 공급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 백련사'에서 직접 재배한 국내산 장뇌산삼을 최저가격으로 현불샵에서 공급해 드립니다. 한뿌리 한뿌리에 사찰의 정기가 서려 있습니다. 부모님, 스승님, 각종 업무에 지친 현대인들의 건강에 최고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백련사에 직접 방문 하시어 산삼을 채취 할 수도 있습니다.

7~8년근 3뿌리 15만원 → 특가 12만원 / 7~8년근 5뿌리 25만원 → 특가 19만원



### 장뇌산삼의 효능

- ▶ 항암효과: 장뇌산삼은 암세포를 죽이고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 피로회복: 장뇌산삼에 함유된 말뚝 성분은 간기능이나 심기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 ▶ 면역력 증강: 만성피로나 체력저하 등의 허약체질을 개선해 주고 면역력 증강의 효능이 있습니다.
- ▶ 노화방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으며, 피부노화 뿐만 아니라 몸 속의 세포의 노화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 당뇨예방: 장뇌산삼에는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 장뇌산삼 먹는방법

- ▶ 생으로 장뇌산삼을 먹는방법: 장뇌산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뇌두를 제거한 후 아침 공복이나 취침하기 전에 30분이상 오래แช어서 복용하세요. 장뇌산삼을 먹기 전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밥을 지어 먹는방법: 장뇌산삼과 함께 밥을 지어서 먹으면 기력이 없는 분들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소화흡수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뚝배기를 이용해서 밥을 짓는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 ▶ 한약으로 먹는방법: 장뇌산삼 1주당 1리터의 물을 붓고서 센불로 달이다가 풀기시작하면 중불로 반으로 줄인다음 아침저녁으로 공복에 마시면 좋습니다.
- ▶ 술로 먹는방법: 유리병에 장뇌산삼과 술을 부어 밀봉시킨 다음 숙성시켜서 소주잔에 한잔씩 마시면 됩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